

지역 매아리

부안군, 양식어업·수산자원관리 보조사업 희망자 내달 7일까지 모집

부안군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과 양식어업 인의 경영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기반조성을 위해 2018년 양식어업 및 수산자원관리분야 보조사업 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

총 16종으로 기존 10종(토산어종보호사업, 불가사리 구제, 주꾸미산란장조성, 양식장 소독제지원, 김활성 처리제지원, 내수면양식장 시설개선, 양식장스마트관리시스템, 양식장 기자재지원, 김양식장 물김포대구입, 내수면양식장시설현대화, 친환경에너지보급)과 2018년도 신규 6종(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 해양환경정화, 활황합생산기반 시설지원, 조개류 양식어업 경영안정지원,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 등이다.

올 사업은 약 51억원(보조 41억원, 자담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산물가격하락 및 생산량 감소 국가별 FTA체결 등 어려운 현실의 양식이 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고시/공고 안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자원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

부안군은 농림 축산사업의 구조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등 7개 분야 총 125개 사업이며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사업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군청 관련부서와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각 분과별로 현지확인 및 사업성 검토 후 부안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북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해마다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사업시행 전년도에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세부사업 지침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심의 후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동근 농업경영과장은 "2019년도 신청된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신청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청탁금지법 개정안 홍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경조사비 10만원~5만원 ↓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속기관에 전달하고 바뀐 내용을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

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원료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하지만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고창군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간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올해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비정규직 근로자 153명 정규직 전환

논의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60세까지 정년 보장

정읍시가 이달 22일 재(字)로 비정규직 근로자 15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신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4개월 간 실태 확인, 전환심의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자 400여

명 중 일간 생활적 업무나 고령자, 경력적 일자리, 휴직대체 인력 등을 제외 한 인원으로 3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이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됐다.

관련해 시는 실태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표준임금

체계 시달 전까지는 전환 이전 임금 체계와 수준을 적용하며, 처우 개선 방안으로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려 노력했다"며 "근로자들이 정읍시의 한 가족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홍보 박차

내달부터 전 구간 일반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앞두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월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른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으로 고창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박우정 군수는 "그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른신과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통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군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회사인 (주)대한고속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시책사업인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협의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상하현 섬포마을)까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같은 구간 요금제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사업비 9억7000여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 사업지출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관

리에 따른 보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각 읍면 터미널과 이장회의, 경로당 등을 찾아 요금제 변경에 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버스가 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의 마을 택시 운행 통화여건이 열악한 중·고등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돕는 통학택시를 운영해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군정 추진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중앙고속, 할인 운행 협약

내달 1일부터 2년 간 서울행 요금 20% 할인

정읍시와 (주)중앙고속이 최근 서울행 버스 할인 운행에 관한 협약을 가졌다. 정읍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르면 중앙고속은 내달 1일부터 2년 간 서울노선 전 차량에 대해 65세 이상 시민과 중·고·대학생의 버스요금을 20% 할인 운행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회나 탑승 시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차량은 1인1700원, 우등차량은 1인1700원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태인을 경유해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는 주중 1일 18회(센트럴파크 15, 동서울 3회),

주말 1일 24회(센트럴파크 21, 동서울 3회)이다.

시는 중앙고속은 고품질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 각종 진료 등으로 서울 대형병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서울행(센트럴 터미널) 첫차는 기존 06:00에서 04:20분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이용이 많지 않았던 기존의 막차 22:00는 20:0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고속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할인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를 이용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옥정호 상수원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령안 3건은 원안결재하고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령안 등 2건은 보류,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정읍시 단풍이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조항 강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 등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고정준 의원이

발의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한방비행 축구 건의안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무제를 전면폐지 할 것, 그리고 발달장애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배정자 의원의 발의 조례안인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원 간담회에서는 임실군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전면폐지된 이후 전라북도에서 옥정호 수변을 이용한 레포츠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12만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민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차원의 옥정호 상수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gsanmyeong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various gift set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